

태평양, 화장품 장사 꽤 잘했다!

1/4분기에 매출액 1.8% 증가 ... 영업이익 14.6%에 순이익 16.3% 증가

국내 화장품 1위인 태평양의 2/4분기 영업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, 순이익, 경상이익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태평양은 2/4분기에 2967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4년 1/4분기의 2916억원에 비해 1.8% 증가했다고 7월26일 발표했다.

영업이익은 617억원, 경상이익은 788억원, 순이익은 549억원으로 각각 2004년 1/4분기의 539억원, 698억원, 473억원에 비해 14.6%, 12.8%, 16.3% 증가했다.

상반기 기준으로는 6108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4년 1-6월 6022억원에 비해 1.4% 늘었다. 태평양은 상반기 화장품 시장점유율이 35.8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.

상반기 영업이익은 1451억원, 경상이익은 1662억원, 순이익은 1188억원으로 2004년 상반기의 1379억원, 1605억원, 1128억원에 비해 각각 5.2%, 3.6%, 5.4% 증가했다.

2/4분기 영업실적은 화장품 매출이 2419억원으로 2004년 1/4분기의 2368억원에 비해 2.1% 늘었고, 그밖에 치약, 샴푸 등 메스뷰티(생활용품) 부문은 365억원으로 2004년 1/4분기 352억원에 비해 3.8% 증가했다.

그러나 녹차 사업은 신규 경쟁자 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지속되면서 2004년 상반기 193억원에 비해 5.2% 줄어든 183억원에 그쳤다.

태평양 관계자는 “화장품 부문은 전문점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백화점 등 유통채널에서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2/4분기에 좋은 영업실적을 나타냈다”고 밝혔다.

태평양은 2005년 경영방침으로 <빠른 전진>을 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대형 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, 글로벌 시장공략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07/27>